

# 트럼프 2기 정부의 첨단전략산업정책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김 덕 겸 (deokarete@kdb.co.kr)

- ◆ 트럼프 재집권 성공 및 공화당의 양원 과반 확보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
- ◆ 보조금 축소, 對中 견제 강화 노선은 반도체, 2차전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, 對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은 우리 기업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가능

## □ 트럼프 당선과 공화당의 상·하원 석권으로 첨단산업전략 분야에서 정책 변화가 예상

- 美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트럼프 2기 정부 정책은 빠르게 추진될 전망
  - 공화당은 상원 53석(총 100석), 하원 220석(총 435석)을 확보함으로써,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
  - 이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부문에서 정책 변화가 예상되며, 특히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, 對中 견제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

## □ 반도체과학법(CHIPS법)에 따른 반도체 관련 보조금 정책의 향방은 불확실하나, 對中 견제 기조는 강화될 전망

- 트럼프는 반도체 관련 보조금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으나,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존재
  - 트럼프는 보조금 대신 고율관세 부과를 통해서도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가 충분할 것이라 주장
  - CHIPS법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전면 폐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되나, 對中 견제 및 국가안보 관련 심사요건 강화 등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상존
- 반도체 산업에 대한 對中 무역 통제는 강화될 전망
  -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, 네덜란드를 반도체 수출통제\*에 동참시켰으며, 트럼프 재집권 이후 협력국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

\* 日 도쿄일렉트론, 네덜란드의 ASML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제한

- 중국의 우회 거래 차단 및 기술토착화 방지를 위해 수출통제 범위를 저사양 반도체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존재

**□ 2차전지 산업 관련 지원책은 바이든 정부와 달리 축소하는 한편, 자국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계획**

- 2차전지 주요 전방산업인 전기차 지원정책의 축소가 전망되며, 자국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
  - IRA 법 개정을 통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\* 삭감,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 중단 등을 검토 중
    - \* 광물, 부품 요건을 충족한 북미 전기차 구매시 최대 \$7,500 세액공제 제공
  - 자국 내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첨단제조세액공제(AMPC)\*는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, 배터리 소재에 대한 관세부과, 미국산 배터리 수출에 대한 美 수출입은행(US EXIM) 지원 등을 계획
    - \* 배터리 부품, 핵심광물 등을 미국 내 생산·판매하는 경우 배터리 기업에 1kWh 당 셀 \$35, 모듈당 \$10의 세액공제 제공

**□ 트럼프 재집권은 국내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나, 對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새로운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**

-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축소는 국내 반도체, 2차전지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
  - 국내 반도체 업체는 '24.12월 美 상무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최종 확정 받았으나\*, 트럼프 정부의 개입 여지가 남아 있어 對美 투자에 불확실성이 상승
    - \* 삼성전자는 47억 4,500만 달러, SK하이닉스는 4억 5,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확보
  -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친환경 정책 폐지 등은 2차전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\*
    - \* LG에너지솔루션, SK온 등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북미 시설투자 계획을 일부 연기
- 對中 견제 강화는 국내 업체 판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, 중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도 존재
  - 중국 수출 의존도\*가 높은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의 對中 수출통제 압박 심화는 사업 불확실성을 야기
    - \* 최근 5년 평균 반도체 부문 對中(홍콩 포함) 수출 비중은 약 58%
  - 다만, 對中 견제에 따른 중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는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요소